

# 천태·태고 활발, '내실' 다지기

## 2003 주요종단 활동점검 ①

올 한해 종단들의 활동은 분명한 명암을 드러냈다. 조계종에 이어 제2종단으로 꼽히는 태고종이 한보전진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천태종이 종단내외 활동에 두각을 드러낸 반면 진각종과 총지중, 관음종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의 취임 2년을 맞은 태고종은 △종도 화합과 정체성 확립 △재정 확충 △교육불사 강화 등을 중무시표로 내걸고 이의 실현을 위한 확실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태고종은 2001년 총무원장 선거에서 불거진 갈등과 내분을 해소하기 위해 화합중단 실현에 무게를 둔 정책을 폈다. 종단개혁이라는 대전제 아래 전 총무원장 종연 스님의 협조를 이끌어 냈고, 7월에는 처음으로 종단 차원의 구조적 수계산립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사찰법 제정 추진, 사찰 재등록과 승려 분한신고 등을 통한 종단조직의 재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대학원과정인 동방대학원대학교 총무원 청사 건립 추진 등 굵직한 사업도 꾸준히 전개했다. 그러나 해묵은 과제였던 재정 안정과 조직력 강화, 조계종과의 분구 마무리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천태종 신도들이 11월 3일 북한에 전달되는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한 '통일기'와 '를 환송하는 모습.〉

### 태고종 사찰법 제정·분한신고 등 조직 정비 천태종 기와 北지원·미아찾기 등 괄목 성과

**천태종** 수년동안 '건축 불사'에 전념하며 교세 확장에 치중했던 천태종은 복지, 대북교류, NGO 활동 및 군포교 참여 등 어느 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특히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한 통일기와

46만장을 북한에 지원하는 등 대북교류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미아찾아주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법회와 무료 진료 등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또 니르바나 자원봉사단을 비롯

해 전체 사찰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복지 천태종'의 이미지를 굳혔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와 NGO 활동 참여와 몽골불교 지원 등 국제교류 확대도 괄목할 만하다. 비구니 스님

들의 중무 배치,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각종 학술행사를 통한 천태교화 신앙 등도 천태종의 도약을 견인했다.

**진각·총지·관음종** 진각종은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회당대중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불상 보안 문제 등으로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였다. 특히 예년에 비해 대외활동이 거의 없어 통리원 집행부의 업무추진력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진각복지재단의 활동과 밀교교류 확대, 지방교구청 활성화 등은 올해 진각종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진각복지재단은 인천 덕화노인요양원과 대구 보은노인요양원을 자체시설로 건립해 복지시스템의 변화를 꾀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인터넷 포교 활성화도 눈에 띈다. 관음종은 97년 화재로 소실된 총본산 묘각사를 6월 낙성했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끝내 남아있던 종정에 11월 죽산 스님을 추대해 종단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총지중은 수성 중령 추대, 종조전 조성,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등 변화를 시도했으나 현 통리원의 업무추진력은 미진했다.

박봉명 기자 bypark@buddhapia.com  
조계종의 금년 점검은 처우 8면에서 보도합니다.



### 위덕대 교명 표석 제막식

위덕대(총장 손재석)는 12월 2일 부총장 경정 정사를 비롯한 교직원, 회당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정문에서 교명이 새겨진 표석 제막식을 행했다. 위덕대는 "1999년에 설치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교명탑 대신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정문에 교명 표석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명 표석은 포항 보경심인당에 다니는 류호준(주)아세아 대표이사(가)가 기증한 것이다.



### 지역 독거노인에 김장 보시

원웅종(총무원장 법륜)은 12월 9일 서울 구로2동 지역 독거노인 60여명을 원웅사로 초청해 점심 공양과 다과를 제공했다. 또 이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10여명에게는 김장을 담아 보시했다. 원웅종 총정 일공 스님은 "독거노인들이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기는데 작은 힘이나마 되었으면 한다"고 위로했다. 원웅종은 매년 총무원이 위치한 구로동 일대 독거노인 초청 행사와 김장 보시를 해오고 있다.

### 종단소식

#### 진각종 청년회 집담회

진각종 전국청년회(회장 류호선)는 12월 20~21일 경주 신내연수원에서 '진각종과 진각인의 성찰을 위한 집담회(토론회)'를 열었다. 집담회는 진각종의 방향과 성찰 과제, 청년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류호선 회장이 발제하고 토론회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류호선 회장은 "성찰을 통해 정체성을 고민하고 동시에 종단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한 청년회원의 역할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청년회는 집담회에 이어 정기총회를 열어 신인회장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02)911-4509

12월 9일 서울 원웅사에서 제35회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12억 4천여만원의 새해 예산을 의결했다. 또 종단 수탁영산대체 불행, 구조적 수계산립,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무의탁노인 초청 행사 등을 포함한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 동방불교대 설립대회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은 12월 20일 오후 4시 30분 서울 태고사 설립전에서 불교학과 학인들의 설립대회를 열었다. 11월 23일 1차 테스트를 거쳐 선발된 6명의 학인이 설립에 나서며, 2년동안 배운 교학과 수행, 포교방법론에 관해 강론한다. 불교학과를 이수하면 태고종 2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 받으며, 스님들은 대선 법계를 이수한다. (02)745-2030

#### 새해 예산 12억원 의결

원웅종 중앙총회 의결 성찬은

## 태고종, 18일 중앙총회 개원

### 11대 총회 의장단 선출·상임위 구성



태고종 제11대 중앙총회 개원총회 및 제88회 정기중앙총회가 12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봉림사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11대 총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출과 분과별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내년 예산과

사업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되며, 총무원장 운산 스님 취임 이후 2년간 추진해 온 각종 행사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진로를 설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환우)는 11월 27일 11대 중

회의원 적부심사를 실시하고 지허 스님(순천 선암사를 비롯해 지역구 의원 42명과 원봉 스님(경주 보현사)을 비롯해 직능직 의원 9명 등 총 51명의 당선자를 확정, 공고했다. 중앙선거위원회 따르면, 11대 총회 의원 가운데 초선의원은 28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재선의원은 23명이었다. 연령도 40~50대가 28명으로, 10대 총회에 비해 현격히 젊어졌다.

### '천태신앙의 첫걸음' 발간 천태종, 신앙입문·홍보용

'천태종 비구니 스님들은 유발(有髮)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같은 의문에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천태종은 신앙입문서이자 홍보용 서적인 <천태신앙의 첫걸음>을 발간했다. 변형신국평형의 112쪽 분량인 이 책은 천태종을 소개하는 글을 시작

으로 '총본산 구인사로', '구인사로 들어가서', '다시 마음을 굳게 발원하고', '부처님 도량으로' 순으로 배열돼 불교와 종단을 접한 뒤 구인사로 입문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 이어 천태종 스님과 수행에 관한 설명을 접할 수 있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서문을 통해 "초심자에게 불법의 정수를 제대로 알리고 천태종의 생활과 문화를 올바르게 소개하고자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게시판

#### 행사

▲불교상담개발원은 12월 17일 오후 3시 서울노인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신인원장 정덕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이와 함께 자비전화송년의 밤 행사도 열린다. (02)737-8803

▲불교포럼은 12월 17일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불교계 진보적 여론광장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터넷 토론회의 필요성 및 현황' 등을 주제로 김승국 평화단체 대표

#### 모집

▲파라미타청소년회는 2004년 1월 5일부터 17일까지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열리는 전통문화재 지도자

양성과정에 참가할 교원 4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초·중·고 교사. (02)723-6165

#### 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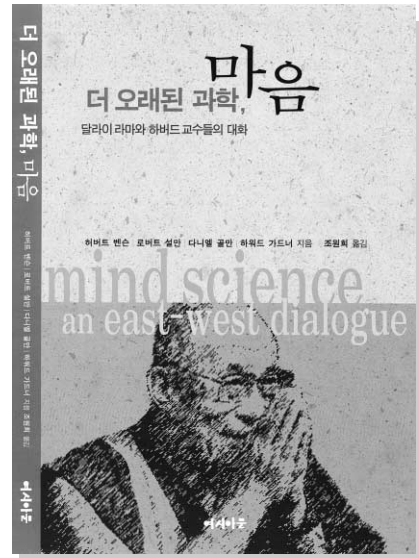
▲제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재활사업에 종사할 사회복지사를 구한다. 자격증 소지자 또는 예정자. 마감은 12월 17일. (043)652-0900

▲서울 서대문구립 한화어린이집은 보육교사와 시설장을 채용한다. 보육교사는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소지자, 12월 3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시설장은 12월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02)306-7518

▲무료노인요양원인 김해 보현행원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사 1명을 모집한다. 전화접수후 수시 면접 가능. (055)329-1733

어서이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대)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명상은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 미국인 천만명 '명상 붐' - <타임>지 보도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년 / 9,000원

## 마음 더 오래된 과학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타임>지 최근호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 행동의학과 허버트 벤슨 박사가 연구한 명상할 때의 뇌상태 결과를 소개하는 등, 명상이 심장병, 암 등의 만성적인 난치성 질병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한다고 소개했다. 또 우울증, 주의력 결핍 등 심적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명상요법이 널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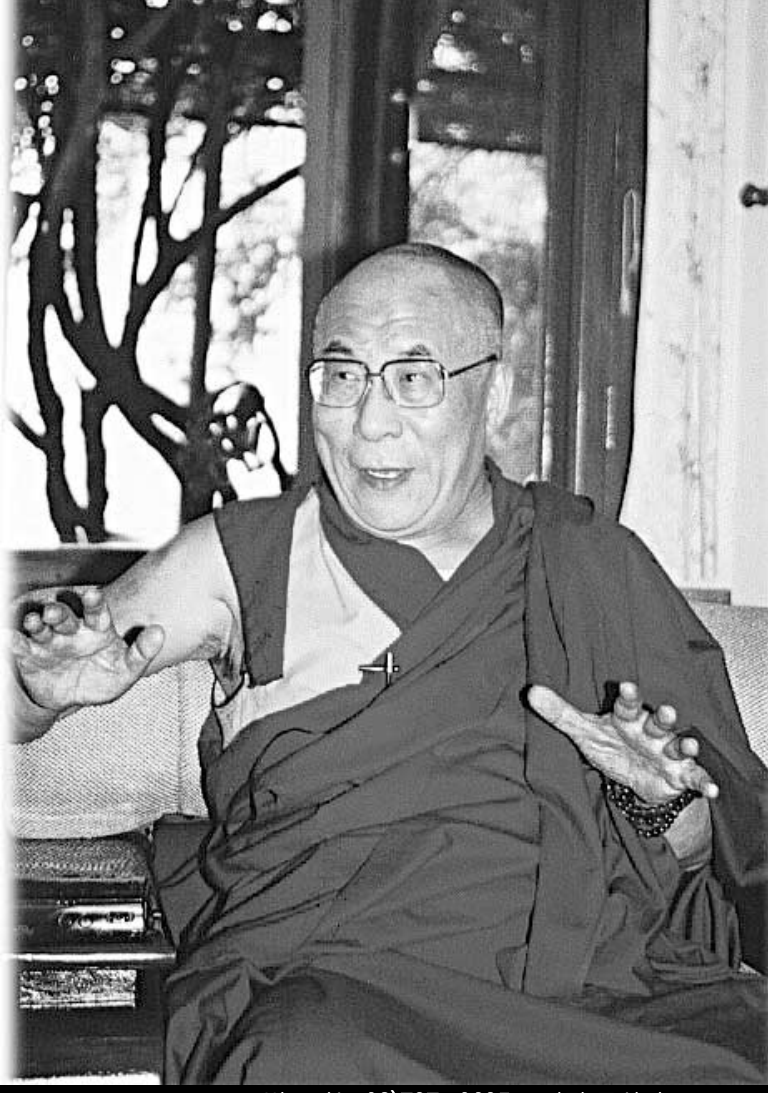
된다는 연구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를 대표하는 허버트 벤슨 박사 등 하버드 석학들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 마음과학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이다.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 달라이 라마

"마음은 정신적 사상이 상호 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mind science

법보시는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